

## 삼위일체-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천사 (Rublev's Trinity Icon)

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, 정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라할 지라도 세 명의 천사가 앉아 있는 이 성화는 한번쯤 보았을 겁니다.

이 성화는 15세기에 러시아의 화가인 안드레이 루블로프 Andrei Rublev 가 그린 것인데,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명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.



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.

성경의 말씀을 보면, 이 세명의 천사가 곧 "여호와"라고 말합니다 (1절). 초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세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 투영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맞이하였던 세 하나님의 성화는 성부-성자-성령을 그림으로 표현한 (아이콘 icon)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성화가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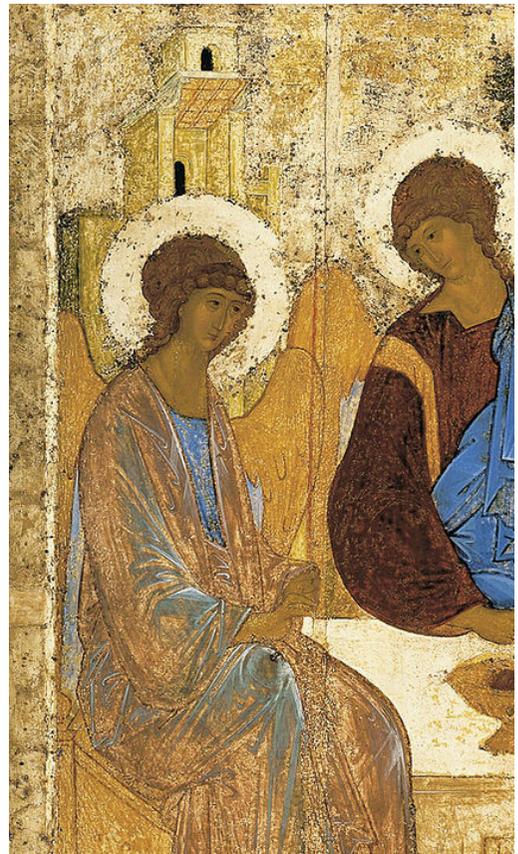
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, 이 때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문제가 되었던 것중의 하나가 "아이콘"에 한 문제였습니다. 아이콘은 대부분 문맹이었던 당대 사람들의 신앙훈련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에 중시하였던 동방교회와 "우상숭배"라는 이름으로 금하였던 서방교회의 신학이 엇갈렸던 것인데요, 물론 지금은 서방교회(캐톨릭)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이콘을 사용하지만, 신학적인 대립이 여전하였던 중세에는 이 성화가 서방교회에게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.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히(!)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로 묘사하였으니 말입니다.

그런데, 이 성화를 보면서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고, 예수님이고, 성령님이신가? 입니다. 생김새와 모습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 내는 것도 힘들고, 특별히 그 천사들의 앞에 누구라고 써놓은 명찰도 없어서 처음 이 성화를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. 분명히 세명의 천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면 그냥 뭉뚱그

리지 않고 각각의 특징이 있을테니 말입니다. 그림을 잘 보면, 다 똑같아 보여도, 입은 옷이 다르고, 옷의 색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아이콘에서는 이런 특징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예를 들자면, 삼위일체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하면서 그 천사 아이콘의 크기가 셋다 동일하다는 것은 비록 성부, 성자, 성령의 세 위격으로 있을 지라도 그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.

이 성화를 보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, 세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, 그 중에 제일 가운데에는 아무래도 "성부 하나님"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예수님과 성령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, 누가 예수님일까? 누가 성령님일까? 를 고민하는데요. 정말 그럴까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그림의 왼쪽에 앉아있는 천사가 "성부 하나님"입니다. 왼쪽 천사 위에 그려진 건물은 아브라함의 장막이면서,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상징합니다. 그리



고 그 건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요.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열려져 있는,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최종의 마지막 장소인 **하나님의 집**을 뜻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왼쪽 천사가 입을 옷을 보면, 다른 두 천사의 대비가 강한 색의 옷이 아니라, 뭔가 빛바랜 듯한 무슨 색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모한 빛깔을 띠고 있는데, 이것 역시 **하늘의 광채**를 의미하는 **하나님의 빛**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에 앉은 천사의 시선이 왼쪽의 천사에게로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록 앉아 있는 위치는 좌측이지만, 다른 모든 천사의 시선의 집중을 받고 있으니깐요. 게다가 잘 보시면, 가운데와 오른쪽 천사는 왼쪽 천사를 향하여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, 마치 주의 집중해서 듣거나, 인사하는 듯한 자세를 잡고 있는 반면에 왼쪽의 천사는 꼳꼳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 역시 **"성부 하나님"의 권위를 상징하는 포즈**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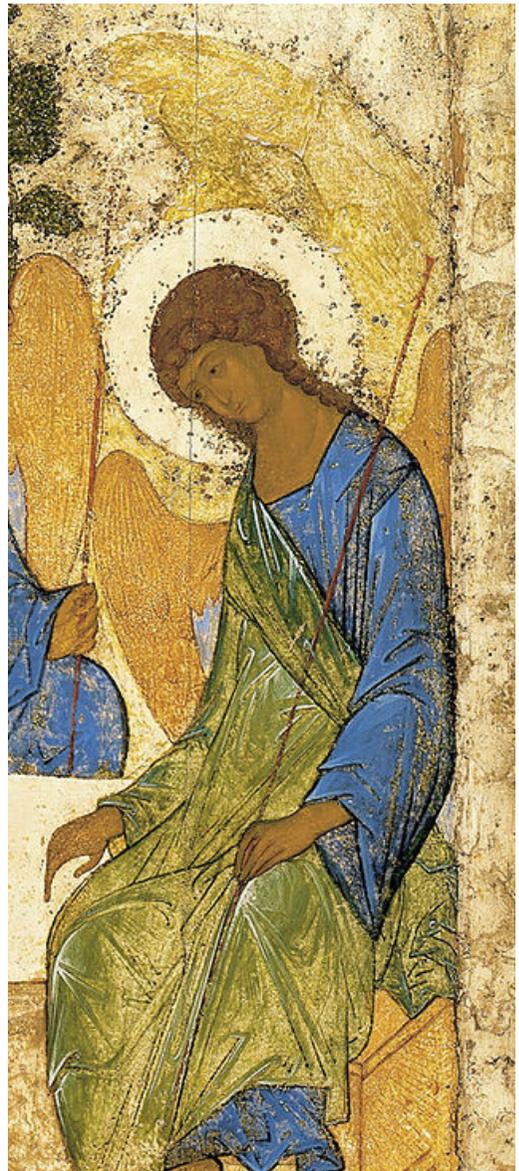
**오른쪽에 앉은 천사는 "성령 하나님"입니다.**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의 옷은 **녹색과 파란색의 옷**을 입고 있는데, 이것은 **땅의 색**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푸른 풀이 자라고 물이 풍성한 **풍요로운 땅**입니다. 동시에 **파란색**은 "하늘"을 그리고 **녹색**은 "땅"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. **하늘의 신성하고 거룩한 영(바람)을 땅에 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**이지요.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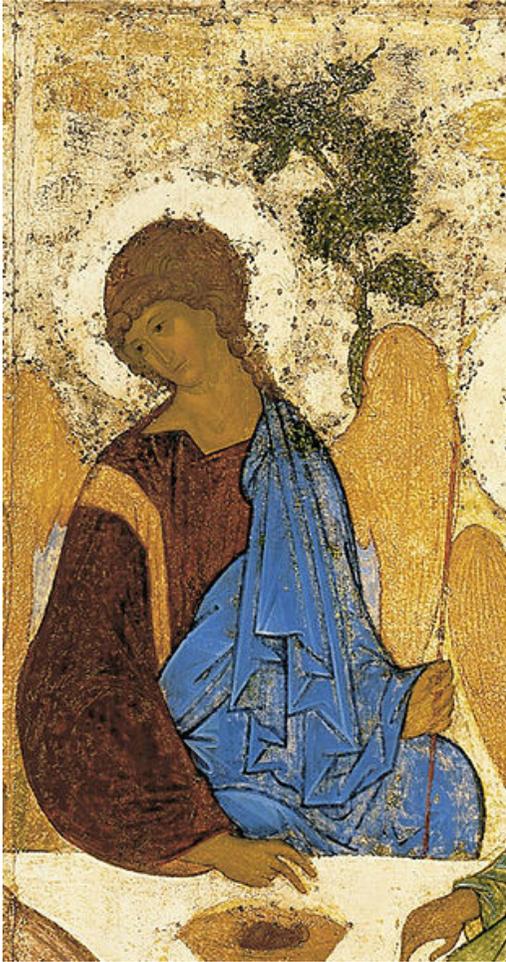
"세상 어느 곳에 계시고, 모든 것을 (풍요롭게) 채우시는 분"

이라고 고백을 합니다.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**정교회의 오순절의 교회력 색**은 "녹색"입니다. 그리고 오순절 정교회의 교인들은 녹색의 옷이나 술을 걸칩니다. 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. 성부 하나님은 두 손 모두가 테이블에 있지 않습니다. 한 손은 홀을 잡고 있고 한 손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형태입니다. 반면에 **성령 하나님은 한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는데요.**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"하늘에", 그리고 **성령 하나님은 한 손은 "하늘에" 그리고 한 손은 "땅에" 두고있어서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.** 성령 하나님의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**산(언덕-높은 곳)**입니다. 이 산은 **하나님과 사람들이**

**만나는 장소**를 상징합니다. 또한 기독교인들이 올라야할 **믿음의 경지**를 상징하기도하는 것이지요.

이제 **가운데 앉았는 천사는 당연히 "성자 하나님"인 예수 그리스도**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**예수님의 옷은 붉은 색과 파란색의 옷**인데요. **붉은 색 (피)은 인성을 상징하고, 파란색 (하늘)은 신성을 상징**합니다. 때로는 당시 황제나 고관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붉은 색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상징하고, 파란색이 인성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**아이콘 해석의 문제**인데요, 저는 전자의 것을 더 선호합니다. 어찌 되었든, 성화를 만





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것은,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,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세명의 천사와 더불어 이들의 머리 뒤의 아우라는 흰색입니다. 이 흰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색깔이며, 동시에 이 흰색이 테이블 위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. 이 테이블 위의 한 가운데에는 잔이 하나있는데요. 테이블은 성례전에 사용되어지는 교회의 성례전상(제대)이고, 잔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담은 성배입니다. 즉, 예배에서 드리는 거룩한 성례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세 명의 천사의 위에 있는 각각의 "산" (높은 곳: 언덕), "나무", "하나님의 집"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는데요. 성부, 성자, 성령님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이 아이콘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. 신자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. ☒

났을 때, 붉은 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콘을 만나시면,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것은 아이콘의 불문율입니다.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 천사의 오른쪽 어깨에는 금색의 어깨 띠가 있는데요, "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었다"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금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.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는 나무가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창세기의 내용에 근거해서 "마므레 상수리 나무"이며, 동시에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대표하고 있고,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 나무를 동시에 상징합니다. 예수님의 손도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한 손은 홀을, 다른 한 손은 테이블을 잡고 있습니다. 성령 하나님의 설명과 같은 의도인데요,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손의 손가락 모양입니다. 잘 보시면, 하나님은 그 오른 손이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, 예수님의 손은 성령님